

## まえがき

この『日中韓詞学論文集—花間集から近藤元粹まで』は、2020年度に、立命館大学アジア・日本研究所の「AJI 研究高度化推進プログラム」の「国際研究集会企画・開催補助」において、「日中韓詞学文化交流研究会」という申請題目で採択された研究会の成果です。研究会の準備にあたり、同研究所長の小杉泰先生より貴重なご意見とご教示を賜り、加えて11月29日研究集会の当日に開幕の辞をいただいたことに、深甚なる敬意と感謝を表する次第です。

漢字に基づいて構築されてきた東アジアの文明、いわゆる漢字文化圏の存在は、世界の発展に不可欠なものであったと言えます。また漢字文化圏における文化交流、特に知識人が大きな役割を果たす文学における文化交流の重要性は看過できません。他方で、経済の高度発展や先端科学技術が追求される今日、人間の根本としての精神的な余裕がなくなり、周囲の環境への感知や優れた文学作品に対する素朴な感性が益々薄くなってきたと痛感しています。そのため、今回の研究会を機に、よく知られる「詩」以外に、「詞」を連結点として日本・中国大陸・台湾・香港・韓国の知識人たちと文化交流を行ったことが伝達できれば、成功に繋がる一歩となると期待されます。

主たる成果としては、日本・中国大陸・台湾・香港・韓国からの5名の講演者が発表を行いました。いずれも講演内容は日中韓の文学史における連結点としての詞です。具体的には、下記の通りです。

萩原正樹先生は「近藤南州の手記『詩余』」において、明治時代の儒学者と漢詩人である近藤元粹(1850-1922、号は南州)の詞及び関連資料を論じました。大雅堂定亮編『増補詞学金粉』(青木嵩山堂、1897)に「詩余 近藤南州手記」が掲載されています。この論文では、中国の詩人の詩集を大量に校訂し、注や評語を附して出版した近藤元粹が、詞学についても造詣が深かったことが論じられています。論文に引く「詩余」も、近藤元粹の詞に関する知識を知るに十分な内容です。

汪超先生は「花間詩人の越地想像と書写」において、地理学の観点から、『花間集』の詞人たちの江南の「越地」に対する描写とそれらの作品間の関連性を論じました。花間派の作者の多くは越地で地元

ついて書いておらず、その創作は虚構と想像に彩られています。この想像力は、作詞家の空間認識や地理的認識を反映するだけでなく、テキストの制作や派生に関する興味深い問題をいくつも明らかにしています。この論文は2021年度の中国詞学研究会年会の優秀論文特等賞を受賞しました。

魯耀翰先生は「朝鮮前期元好問『遺山楽府』の受容：金時習を中心に」において、朝鮮前期における元好問『遺山楽府』の刊行事実とその享受様相について、金時習の事例を中心に検討し、金時習『関東日録』収録の五篇の詞作品は、元好問『遺山楽府』の目次順に従って一種の和韻の形式で作成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また、金時習が元好問の詞の詞体や主題などを参考しつつも、それを転化して自分の詞領域を構築したことを論じました。

李日康先生は「文学史系譜の構築：『詞律』における周邦彦、方千里、呉文英三家詞の内的関連」において、三家の詞作品を手がかりとして、『詞律』の本質的な繋がりを探っています。このような関連性は具体的には、特有の形式が備わる体例、評注と編次に表現されています。三家詞の相互校正と比較という基準のもと、『詞律』の著者である万樹はそこから原理的な模範を抽出し、意識的にそれを深化、伝播させたのです。これは、詞譜を編集することで時代の悪弊を正すという万樹の実践であると同時に、文学史における彼の詞学観念と独自の知識体系を構成するものです。

靳春雨は「和刻本元好問詩詞集の刊行及び日本における受容について」において、元好問が編著した『中州集』の元代から清代までの各版本を紹介しました。室町後期の臨済宗僧惟高妙安（1480—1568）が抄物『詩学大成抄』で言及した『中州集』は、台湾国家図書館所蔵延祐乙卯刊元建安広勤書堂修補本です。また日本では、菊池溪琴編『遺山先生詩抄』、竹添井井編『元遺山先生詩選』等の和刻本が刊行されました。さらに、近藤元粹が校訂した『箋註宋元明詩選』を通じて、日本における元好問とその作品の受容状況を検討しました。

この研究会での発表によって、詞学における研究方法を参考にするだけでなく、日本漢詩人の作品集と和刻本、中国の詩人の作品が収録されている朝鮮本等の貴重な書誌情報を相互に共有し、今後の研究に

向けて重要な基礎資料を共有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特に日本と韓国所蔵の詞籍文献を分析することで、当時の日中韓の文人がよく利用した詞籍文献と文壇における詞学の受容過程を明らかにし、詞籍文献の伝播という視点から日本と中国と韓国との詞学における文化交流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最後に、企画から開催まで貴重なご助言を賜った小杉泰所長、ご協力いただいた発表者の萩原正樹先生、魯耀翰先生、汪超先生、台湾国立彰化師範大学国文系助教詹千慧先生、李日康先生、また特別な助言者である立命館大学文学部特任教授芳村弘道先生、東海学園大学人文学部教授松尾肇子先生、立命館大学中国文学・思想の大学院生宮本紗代さん、詹斐雯さん、鄭玲玉さん、アジア・日本研究所編集制作室の岡本多平氏に、あらためて心から深甚なる謝意を捧げる次第です。

編者  
斬 春雨

## 前言

2020年度，笔者以“日中韩词学文化交流研究会”为申请课题得到立命馆大学亚洲·日本研究所“AJI研究高度化推进项目：国际研究集会企画·开办补助”的经费资助。在研究会筹备阶段曾得到同研究所小杉泰所长的珍贵意见和悉心指导，并于11月29日研究会当日邀请小杉所长致开幕词，在此深表谢意。

以汉字为基础建立起来的东亚文明，也即汉字文化圈是世界发展中不可或缺的存在。汉字文化圈中的文化交流，尤其是知识分子发挥重要作用的文学方面的文化交流更不应轻视。在经济高度发展和追求先端技术的今天，笔者深感作为人之根本的精神上的充裕和从容正在逐渐消失，并且对周围环境的感知和欣赏优秀文学作品的朴素的感性也日益淡漠。因此，以此次研究会为契机，除熟知的“诗”外，以“词”为纽带能够促进中（台湾、香港）日韩文人间的文化交流的话，也可谓迈向成功的一小步。

本次研究会的主要成果为，由来自中国大陆、台湾、香港、日本、韩国的五位学者进行发表演讲，内容均涉及中日韩文学史中的共同点词。具体论文内容如下：

萩原正树老师在《近藤南州的手记〈诗余〉》一文中，论述了明治时期的儒学者和汉诗人近藤元粹（1850—1922，号南州）的词及相关资料。大雅堂定亮编《增补词学金粉》（青木嵩山堂，1897）中载《诗余 近藤南州手记》。文中还论及近藤元粹曾大量校订中国诗人的诗集，并附批注和评语，除此之外，还可得知近藤元粹在词方面也有很深的造诣。论文中所引《诗余 近藤南州手记》是了解近藤元粹的词学的重要资料。

汪超老师在《花间词人的越地想象与书写》一文中，从地理学的角度论述了《花间集》的词人对江南越地的书写及其作品间的关联性。花间词人并非在越地书写越地，其创作带着虚设与想象。此种想象不但体现出词人们的空间感受、地理认知，也展现出颇多有意思的文本生产、衍生问题。此论文在2021年度获得中国词学研究会年会优秀论文特等奖。

鲁耀翰老师在《朝鲜前期元好问〈遗山乐府〉的受容：以金时习为中心》一文中，探讨了朝鲜前期元好问的《遗山乐府》的刊刻和接受情

况，并以金时习的事例为主进行了讨论。金时习的《关东日记》中所收词作品五篇，是按照元好问《遗山乐府》的目录顺序填写的和韵词。此文中还提到金时习在参考元好问词的词体和主题的同时，并对此进行演绎从而建构了自己的词之领域。

李日康老师在《文学史系谱的建立：〈词律〉中周邦彦、方千里、吴文英三家词的内在理路》一文中，以周方吴三家所作例词为线索，探索《词律》中存有一内在理路，这种内在理路具体表现为具备特定形式的体例、评注和排版。在周方吴三家例词互勘比照的典范底下，万树从中抽取其原理范式，并有意识地予以深化、宣扬。既作为以编谱事业来救正时弊的实践，也构成万树独特的知识系谱，标志他用以回应文学史的词学观。

靳春雨在《和刻本元好问诗词集的刊行及其在日本的受容探析》一文中，介绍了元好问编著的《中州集》的自元代至清代的各种版本。并探讨了室町后期的临济宗僧惟高妙安（1480—1568）在抄物《诗学大成抄》中所言及的《中州集》，应是台湾“国家图书馆”所藏延祐乙卯刊元建安广勤堂修补本。在日本有菊池溪琴编《遗山先生诗抄》，竹添井井编《元遗山先生诗选》等和刻本刊行。并通过近藤元粹校订《笺注宋元明诗选》探讨了元好问及作品的受容情况。

通过此次研究发表，不仅提供了词学方面可供参考的研究方法，而且共享了日本汉诗人的作品集与和刻本，以及收录中国诗人作品的朝鲜本等珍贵的书籍信息，也为今后的研究提供了重要的基础资料。特别是通过中日韩所藏词籍文献的分析，明确了中日韩文人常用词籍和文坛对词学的接受过程，并且以词籍文献的传播为视点，对中日韩的词学文化交流进行了探讨。

最后，自筹备至开办对本次研究会提供珍贵意见的小杉泰所长，以及发表者：萩原正树老师、汪超老师、鲁耀翰老师、台湾国立彰化师范大学国文系助教詹千慧老师、李日康老师，特邀发言人立命馆大学文学部特任教授芳村弘道老师，东海学园大学人文学部教授松尾肇子老师，以及立命馆大学中国文学思想专业的博士研究生宫本纱代同学、詹斐斐同学、郑玲玉同学，还有亚洲·日本研究所编集制作室的冈本多平先生再次致以诚挚的谢意。

编者  
靳春雨

## 머리말

2020년도 리쓰메이칸대학 아시아·일본연구소「AJI 연구고도화추진 프로그램(研究高度化推進プログラム)」의「국제연구집회기획·개최보조(國際研究集會企畫·開催補助)」에서「일중한사학문화교류연구회(日中韓詞學文化交流研究會)」라고 하는 신청 제목으로 채택되었다. 연구집회의 준비에 있어 동(同) 연구소 소장 고스기 야스시(小杉泰) 선생님께서부터 귀중한 의견과 교시를 받고, 이에 더하여 11월 29일 연구집회 당일에 개회사를 해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경의(敬意)과 감사를 표한다.

한 자를 바탕으로 구축된 동아시아 문명, 이른바 한자문화권의 존재는 세계의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자문화권에서의 문화교류, 특히 지식인이 큰 역할을 하였던 문학에서의 문화교류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경제고도발전, 첨단과학기술이 추구되는 오늘날, 인간의 근본으로서의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주위 환경에 대한 감지나 빼어난 문학작품에 대한 소박한 감성이 점점 열어져 왔음을 통감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번 연구를 계기로 잘 알려져 있는 ‘시(詩)’ 이외에 ‘사(詞)’를 연결점으로 일본·중국·대만·홍콩·한국의 지식인들과 문화교류를 했던 것을 전달할 수 있다면 성공으로 가는 한 걸음이 되리라 생각된다.

주요 성과로서는 일본·중국·대만·홍콩·한국에서 5명의 강연자가 발표를 했는데, 강연 내용은 모두 한중일 문학사에서의 연결점으로서의 사(詞)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하기와라 마사키(萩原正樹) 선생님은「近藤南州の手記『詩餘』」【곤도 난슈(近藤南州)의 수기(手記)「시여(詩餘)」】에서, 메이지 시대의 유학자이자 한시인(漢詩人)인 곤도 겐스이(近藤元粹, 1850~1922, 호는 南州)의 사(詞)와 관련 자료를 논하였다. 다이가도 사다스케(大雅堂定亮) 편『증보사학금분(增補詞學金粉)』(青木嵩山堂, 1897)에「詩餘 近藤南州手記(시여 곤도남슈 수기)」가 게재되어 있다. 중국시인의 시집을 대량으로 교정하고 주(注)와 평어(評語)를 부기하여 출판한 곤도 겐스이가 사학(詞學)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던 사실을 논하였다. 논문에서 인용한 ‘시여(詩餘)’도 사(詞)에 관한 곤도 겐스이의 지식을 알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왕 차오(汪超) 선생님은 「花間詞人的越地想象与书写」【화간(花間) 시인의 월지(越地) 상상과 서사(書寫)】에서, 지리학의 각도에서 『화간집(花間集)』 사인(詞人) 들의 강남(江南) 「월지(越地)」에 대한 묘사와 그들 작품 간의 관련성을 논하였다. 화간파(花間派) 작자의 대부분은 월지(越地)에서 그 지방에 대해 쓰고 있지 않고, 그 창작은 허구와 상상으로 채색되어 있다. 이 상상력은 작사가(作詞家)의 공간 인식과 지리적 인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제작과 파생에 관한 흥미 깊은 여러 문제를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2021년도 중국사학연구회(中國詞學研究會) 연회(年會)의 우수논문특등상을 수상하였다.

노요한(魯耀翰) 선생님은 「朝鮮前期元好問『遺山樂府』の受容：金時習を中心に」【조선전기 원호문 『유산악부』의 수용：김시습을 중심으로】에서 조선전기 원호문 『유산악부』의 간행 사실과 그 향유 양상에 대해 김시습의 예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김시습 「관동일록(關東日錄)」에 수록된 5편의 사(詞) 작품은 원호문 『유산악부』의 편차에 따라 일종의 화운(和韻)의 형식으로 지은 것임을 밝혔다. 또한 김시습은 원호문 사의 사체(詞體)와 소재 등을 참고하여 사(詞)를 지으면서도 이를 점화(點化)하여 자신만의 사 세계를 구축해 나갔음을 논하였다.

리 약홍(李日康) 선생님은 「文學史系譜的建立：『詞律』中周邦彥、方千里、吳文英三家詞的內在理路」【문학사 계보의 구축：『사율(詞律)』의 주방언(周邦彥)·방천리(方千里)·오문영(吳文英) 삼가사(三家詞)의 내적 관련】에서, 삼사(三家)의 사(詞) 작품을 실마리로 하여 『사율(詞律)』의 본질적인 관련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관련성은 구체적으로는 특유의 형식이 구비된 체례(體例), 평주(評注)와 편차에 표현되어 있다. 삼가사(三家詞)의 상호 교정과 비교라고 하는 기준 하에 만수(萬樹)는 거기에서 원리적인 모범을 추출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심화·전파했던 것이다. 이는 사보(詞譜)를 편집함으로써 시대의 악패를 바로잡는다고 하는 만수의 실천인 동시에 문학사에서의 그의 사학(詞學) 관념과 독자적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진 춘위(靳春雨)는 「和刻本元好問詩詞集的刊行及其在日本的受容

探析」【화각본(和刻本) 원호문 시사집(詩詞集)의 간행과 일본에서의 수용에 대하여】에서, 원호문(元好問)이 편저(編著)한 『중주집(中州集)』의 원대(元代)에서 청대(清代)까지의 각 판본을 소개하였다. 무로마치(室町) 후기의 임제종(臨濟宗) 승려 이코 묘안(惟高妙安, 1480~1568)이 초물(抄物) 『시학대성초(詩學大成抄)』에서 언급한 『중주집』은 타이완 국가도서관 소장 연우을묘간(延祐乙卯刊) 원건안광근서당(元建安廣勤書堂) 수보본(修補本)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기쿠치 게이킨(菊池溪琴)편 『유산선생시초(遺山先生詩抄)』, 다케조에 세이세이(竹添井井)편 『원유산선생시선(元遺山先生詩選)』 등의 화각본(和刻本)이 간행되었다. 또한 곤도 겐스이(近藤元粹)가 교정(校訂)한 『전주송원명시선(箋註宋元明詩選)』을 통해 일본에서의 원호문과 그 작품의 수용상황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회에서의 발표에 의해 사학(詞學)에서의 연구 방법을 참고할 뿐만 아니라, 일본 한시인의 작품집과 화각본, 중국시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조선본 등의 귀중한 서지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앞으로의 연구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공유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 소장된 사적(詞籍)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한중일의 문인들이 자주 이용했던 사적 문헌과 문단에서의 사학(詞學) 수용과정을 밝혀, 사적 문헌의 전파라고 하는 시점에서 한국·중국·일본의 사학(詞學)에서의 문화교류에 대해 검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획에서 개최까지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고스기 야스시(小杉泰) 소장님, 하기와라 마사키(萩原正樹) 선생님, 노 요한(魯耀翰) 선생님, 왕차오(汪超) 선생님, 타이완 국립彰化사범대학(國立彰化師範大學) 국문과 조교 잔첸후이(詹千慧) 선생님, 리얏홍(李日康) 선생님, 요시무라 히로미치(芳村弘道) 선생님, 도카이가쿠인대학(東海學園大學) 인문학부 교수 마쓰오 하쓰코(松尾肇子) 선생님, 리쓰메이칸대학 중국문학·사상 대학원생 미야모토 사요(宮本紗代) 씨, 잔페이원(詹斐雯) 씨, 정링위(鄭玲玉) 씨, 아시아·일본연구소 편집제작실의 오카모토 다헤이(岡本多平) 씨에게 거듭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편자  
진춘위  
노요한 번역





## 靳 春雨 (Chunyu Jin)

立命館大学アジア・日本研究所専門研究員。主に詞学、詞籍、和刻本漢籍等について研究を行っている。主な論文に、「宋代詞学の史資料研究と日中韓・漢字文化圏の交流」(『立命館アジア・日本研究学術年報』2、2021)、「立命館大学図書館西園寺文庫所蔵『詞綜』研究」(『東亞漢籍研究』14、2020)、「山口剛と詞—「槐南朱批『梧桐雨』」と『荷塘印影』を手がかりとして」(『學林』70、2020)等がある。

立命館大学亚洲・日本研究所专门研究员。主要研究词学、词籍、和刻本汉籍等。主要论文有：《宋代词学的史料研究与日中韩·汉字文化圈的交流》(《立命館アジア・日本研究学術年報》2, 2021);《立命館大学图书馆西园寺文库所蔵〈词綜〉研究》(《东亚汉籍研究》14, 2020);《山口刚与词—以〈槐南朱批《梧桐雨》〉和〈荷塘印影〉为例》(《學林》70, 2020)等。

리쓰메이칸대학 (立命館大學) 아시아·일본연구소 (アジア·日本研究所) 전문연구원. 주로 사학 (詞學), 사적 (詞籍), 화각본 (和刻本) 한적 (漢籍)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에 「송대 사학 (詞學) 역사자료연구와 한중일·한자문화권의 교류」(『立命館アジア·日本研究学術年報』2, 2021), 「리쓰메이칸대학 도서관 사이온지 문고 (西園寺文庫) 소장 『사총 (詞綜)』 연구」(『東亞漢籍研究』14, 2020), 「야마구치 다케시 (山口剛) 와 사 (詞)—「가이난 (槐南) 주비 (朱批) 『오동우 (梧桐雨)』」와 『하당인영 (荷塘印影)』을 실마리로」(『學林』70, 2020) 등이 있다.